

# ‘전남·광주교육비전위’ 출범...집단지성 힘 모은다

### 555명 50일간 50개 과제 발굴 지역교육 비전·통합전략 마련

전남도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55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비전위원회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와 교육전문가, 학부모, 청년,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555명의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통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50일간 집중 논의를 거쳐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전남광주교육행정

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도출된 과제를 심화·발전시켜 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공개투표로 선출된 공동대표 5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공유와 통합교육 비전 방향 제시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 위원 오영준씨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잇는 다리, 전남광주통합교육’을 주제로 발언하면서 학생과 함께 발표에 나서 큰 공감을 얻었다.

청년 공동대표 정승준씨는 ‘전남광주교육통합, 가르침의 본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과 예비교사를 정책의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비전선포...통합 지원 본격화

### 장학·진로·마을교육 등 미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렸다.

재단은 지난 25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회와 교육계 인사, 기관·사회단체장, 학부모,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재단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었다.

행사는 재단 설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영광학생연합회 대표가 재단에 바라는 점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25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영광군

재단은 ‘함께 키우는 교육, 지속 가능한 영광’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장학사업을 비롯해 교육정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영광학생포럼 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세일 이사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

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교육에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jgp9@gwangnam.co.kr

## 광주지체장애인협회·(주)공동체, 일자리 창출 ‘맞손’

(사)광주지체장애인협회와 (주)공동체는 26일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본부에서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광주 전역에 카페온(스타벅스 캡슐 자판기)을 설치해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로 광주지체장애인협회는 카페온을 활용해 회원들의 자판기 운영·관리, 재료보충 등 일자리 창출, 협회 복지사업 재투자를, (주)공동체는 지체장애인 관리자 대상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자판기를 공공·상업 시설과 아파트, 대형빌딩에 설치해 고객 중심의 음



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한우 광주지체장애인협회장은 “지체장애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중심의 설치로 장애인 복지의 공공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3@gwangnam.co.kr

##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마무리

### 6개 권역 순회...구민 200여명 참여

광주 북구가 주민과 함께 예산을 설계하는 참여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7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6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총 200여명의 구민이 참여했다.

특히 북구의 행정 지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 ‘협치형 운영’으로 내실을 더했다는 평가다.

위원회 임원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제도 이해부터 예산 기초교육, 공모신청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공유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참여 역량을 높였다.

빙성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제도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27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권역별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북구

뒀다”고 말했다.

북구는 설명회 종료 이후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7년 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포스코 해의 합작사인 ㈜SNNC는 최근 취약계층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150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 (주)SNNC,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에 1500만원 전달

포스코 해의 합작사인 ㈜SNNC(사장 지현룡)는 최근 취약계층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1500만원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이다.

전달된 성금은 늘사랑·옥곡·태인지역아

동센터에 불려 프로그램, 광양시마루나눔리터너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및 병원 치료와 문화체험프로그램, 중앙장애인복지관에는 재가 장애인 말벗지원 사업과 장애인 사진 동아리 운영, 광양YWCA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 꾸러미 및 도시락 배달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일기정영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 (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2월 9일)

48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다  
60년생 거래처에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72년생 말로는 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하라  
84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된다  
96년생 육성 부린 만큼 손해다  
51년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63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75년생 지나친 의존은 귀하게 대해 줄 수 없다  
87년생 복잡한 일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  
99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라  
54년생 심심하지는 않았다  
66년생 노력과 반대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78년생 지인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90년생 완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57년생 늦 바람이 더 무섭다  
69년생 부동산·예·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81년생 친구가 오히려 해를 준다  
93년생 의지를 확고히 할 때

49년생 제3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61년생 사소한 소문으로 큰 일을 놓친다  
73년생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신중하라  
8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라  
97년생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2년생 말을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4년생 명예·지위가 오르고 빌려준 돈 받는다  
76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되어 할 것  
88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55년생 자녀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하라  
67년생 실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  
79년생 무리해 진행하면 하지 않을 만 하다  
91년생 뒷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라  
58년생 아랫사람과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라  
70년생 부부 불화가 있었으니 자중하라  
82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94년생 과감하게 도전하라

50년생 바다 쪽으로 여행을 가라  
62년생 주변에 적이 있는 형상이니 언행 조심  
74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된다  
86년생 모든 면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98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53년생 문서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운이 열리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77년생 지금 그 근심이 약간 해결되겠다  
89년생 돈 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68년생 근심 사라지고 돈벌이가 수월해진다  
80년생 몸은 힘들어도 득이 많은 날  
92년생 움직일 보다 기만히 있는 것이 낫다  
59년생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71년생 계획해 추진하는 일 잘 진행이 될 것  
83년생 주변 모두 귀하의 적이 있는 형상  
95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